BIBLIA
성서학연구소 비블리아
INSTITUTE FOR THE BIBLICAL STUDIES

❖ 이 정리는 Porter, Stanley E. The Apostle Paul: his life, thought, and letters. Grand Rapid: Wm.B.Eerdmans, 2016 를 임재승, 조명훈이 새물결플러스를 통해 번역한 **바울서신연구: 사도 바울의 생애와 사상**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제1장 인간 바울 (1)

초기 교회에서 바울의 위상

첫째, 바울은 아마도 신약 저자들 중에 가장 초기 인물일 것이다

어떤 이들은 야고보서가 바울 서신보다 앞서 기록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런 논쟁이 있으므로 단정적으로 바울 서신이 신약의 저자들 중에서 가장 앞선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가장 초기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가 이른 연대에 가장 많은 분량의 글을 쓴 점은 확실하다.

둘째,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이다

바울은 기독교를 팔레스타인을 뛰어 넘어 소아시아와 유럽까지 가장 적극적으로 전한 인물이다.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으며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이들을 유대교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준 장본인이었다. 그러므로 유대교의 배경이 아닌 이방인들은 바울의 신학적인 영향력을 받고 있다고 보아도 된다.

셋째, 바울은 최초 그리고 최고의 기독교 신학자이다

바울을 '기독교의 두번째 설립자'라고 부를 만큼 기독교에 끼친 그의 신학적인 영향력은 크다(그러나 바울이 기독교를 창시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메세지의 범주를 넓힌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바울은 기독교를 팔레스타인의 특정한 지역에 국환되었던 유대교의 지역적인 종교 분파에서 진정한 세계 종교로 변화시키는 데 상당한 역할을 담당한 인물이다.

그럼에도 특이한 점은 **바울을 평가할 만한 일차 자료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현대 기독교 공동체에 바울이 널리 알려지기는 하였지만,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 이외에는 딱히 그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없다. 바울 서신에 대해서도 그 진위가 논쟁적인데, 다수의 학자들은 일곱 개의 서신만 바울의 저작이라고 믿는다. 그 편지들은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전서**, **빌레몬서**이다.

바울의 외모

성경의 기록을 보아서 바울은 그렇게 인상적인 신체적 특징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한다. 바울의 생김새에 대해서 비교적 구체적인 기록을 남긴 책은 **바울행전 Acts of Paul**(160-180년 전후에 기록된 신약 외경)인데, 바울에 대해서 키가 작고, 머리가 벗겨지고, 다리가 휘고, 피부색이 불그스름하며, 미간에 주름이 있고, 약간 긴 코를 가졌다고 말한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바울의 가시는 육체적인 질병이었다는 라이트푸트 J.B. Lightfoot의 이론을 받아들이는 편이다(소수의 학자들은 이 가시가 영적인 무능력의 일종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갈라디아서 4:15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들의 눈을 빼어 자기에게 기꺼이 줄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아마도 바울의 신체적 질병이 나쁜 시력이라고 말하는 근거가 된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의 마지막에 큰 글자로 쓴 것도 그의 좋지 못한 시력을 가리키는 것일 수 있다.

바울의 양육과 교육

바울의 출생에 대해서는 몇가지 다른 견해가 있다.

첫째, 길리기아 지역의 다소 Tarsus에서 태어났다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고(행 21:39; 22:3)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견해를 지지한다.

둘째, 북부 갈릴리의 기살라(현대 이스라엘 지명 Gush Halav)**에서 태어났고 그가 아주 어렸을 때 그의 부모가 다소로 옮겨갔다**

4세기 교부인 제롬이 **뛰어난 사람** De Virus Illustribus에서 주장하였다. 이 견해에 동조하는 학자들은 사도행전 외에 바울이 다소 출신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단서들이 없고 바울 자신의 서신에서조차 그런 업급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의문을 제기한다. 또한 그들은 사도행전이 바울의 충생지를 다소로 표현하고 그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한 것은 로마의 독자들이 바울을 주의를 기울일 만한 가치가 있는 훌륭한 인물로 여기도록 만들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한다.

다소는 **문화의 주요 중심지**였다. 바울이 태어날 당시 이 도시의 인구는 오십만명 전후였을 것으로 추측한다. 다소는 교육의 중심지인 알렉산드리아나 아테네에 버금가는 **대학 도시**였다. 비록 바울과 같은 세기의 후반에 쇠토하기는 했지만, 이 도시는 바울의 유년기에 특히 번창했다. 유명한 수사학자들과 철학자들이 다소에 모일 정도였다.

로마의 교육은 그리스식 교육 시스템을 차용했는데, **첫 번째 과정은 초등학교**이다. 노예를 포함한 낮은 사회 계층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읽는 법, 쓰는 법, 그리고 기본적인 수학을 가르쳤다. **두 번째**

과정은 김나지움에서 문법 교사 grammaticus와 함께 시작하는데, 문법과 수사학 훈련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상위 계층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교육의 목적은 '좋은 시민'이 되는 것이다). 상위 계층의 사람들은 초등과정을 문법 교사와 시작하며, 노예들과 함께 초등학교에서 배우지는 않는다.

유대교의 율법 학교 시스템도 그리스식 교육 시스템을 영향을 받았다. 유대교는 다섯살부터 열두살까지 학생은 성경 공부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열 세살부터 율법 전통을 배웠다. 교육적으로 유망한 청소년들은 예루살렘으로 보내져 좀 더 뛰어난 교사들 밑에서 공부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식 유대교 고등교육기관은 문헌 고고학 상의 증거로는 예루살렘에만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로마서 7장을 바탕으로(무지했던 시기 7:9, 지식의 시기 7:9-11, 책임의 시기 7:15-21) **바울은 대략 13살에 출가한 그의 누이가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행 23:16) **가멜리엘 문하에서 배웠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바울의 교육에 대한 사도행전 22:3은 문장의 모호함 때문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

>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행 22:3)

첫번째, 바울이 자신은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문하에서 교훈을 받았다."(그리스어 '이 성에서'에서 this 의 모호함을 그대로 직영한 우리말 성경 번역)
두번째, 바울이 자신은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지만, 이 성[예루살렘]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교훈을 받았다."**
세번째, 바울이 자신은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다소]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교육을 받았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두번째의 해석을 선호한다.

바울이 유대교 교육을 받았다는 증거는 매우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리스-로마 교육을 어느 정도 받았다는 정거는 일부 존재한다. 첫번째, 바울은 편지를 쓸 때 그리스 편지 형식을 채용하였다. 그리고 70인역 구약성서를 잘 알고 있었다. 두번째, 바울은 성경 이외의 저자들을 인용한다(기원전 4세기의 시인 아라투스 Aratus를 인용하는 사도행전 17:28, 기원전 6세기의 시인 에페네이데스 Ephmenides를 언급하는 디도서 1:12, 기원전 3세기의 극작가 메난더 Menander의 희극 Thais를 인용한 고린도전서 15:32). 세번째, 바울은 고전 수사학 형식을 사용한다(갈라디아서는 기원전 4세기의 데모스테네스 Demosthenes와 같은 수사학자가 한 연설의 형식을 차용한다. 바울은 특별히 로마서 1-14장과 고린도후서 10-13장에서 디아트리베 diatribe 스타일을 포함한 몇몇 수사학적인 형식을 사용한다). 이런 증거들이 바울이 대단히 진보한 그리스-로마 교육을 받았다는 증거로 충분하지는 않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런 그리스식 교육 시스템을 어느 정도까지 따랐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바울은 정규 종교 훈련으로 진입하기 전에 그리스 언어의 높은 기능적 사용을 포함한 문법학교 교육의 기초적인 훈련을 다소에서 받았을 것으로 추측**한다.

바울과 로마 제국

바울은 시민권자인가?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몇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시민권을 소지한 아버지로부터 상속 받는 경우이다. 둘째는 군복무나 기다 다른 형태로 제국에 유용한 공헌을 한 경우이다. 셋째는 많은 돈을 들여 구입하는 경우이다. 또 한가지 생각해 볼 것은 **로마 제국에는 몇가지 다른 수준의 시민권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특정한 도시의 시민이라는 의미에서 로마 시민일 수도 있고, 어떤 사회 계층이나 계급 중의 하나에 속한 구성원이라는 의미에서 시민일 수도 있다. 바울이 어떤 형식으로 시민권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형태의 시민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사도행전 16:37-39; 22:25-29를 바탕으로 보건대 나면서 부터 시민권자였던 것 같다.

바울이 시민권의 소유자였다면,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과 같은 종교 의식을 따랐는가? 로마 황제 숭배를 시민권자들에게 제도화하여 강제했던 시기는 기원후 2세기 이므로, **바울의 시대에는 황제 숭배는 선택사항**이었다. 그리고 그리스-로마 도시에 사는 유대인들은 그들의 계층이나 계급에 따라 분류되어 어느 정도의 **자율과 자치권을 부여 받아 자신들의 종교적인 관습을 지키는 것이 허용**되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많은 방식에서 그리스-로마의 종교-문화적 환경에 통합되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바울은 **제국의 전문 용어들을 차용**하였다. 그 대표적인 단어들의 예는 '주' κυριος, '구세주' σωτηρ, '강림' παρουσια, '복음' ευαγγελιον, '의' δικαιοσυνη 이다. '주'나 '구세주'와 같은 단어는 전통적으로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용어들이었다. 그리고 '강림' παρουσια 은 통치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말이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로마 제국은 예수를 전하는데 있어서 상징적으로 중요했다고 본다. 이런 연구는 바울이 반제국주의적이었는가 친로마적이었는가를 다투는 근거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단어들의 사용이 제국의 용어 사용이 가진 효과를 지나치게 과정한다는 비판도 많다. 왜냐하면 이런 단어들은 로마 제국의 시대에 매우 일반적인 단어들로 그 단어들에 지나치게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바울은 '반제국주의적 신학자'라고 볼 필요는 없으며, 로마 제국을 완전히 부정했다고 볼 수도 없다. 바울은 로마를 일정한 권세를 지닌 지상의 통치자로 인식했지만 그와 동료 신자들을 지배하는 진정한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졌다.